

나주시, 4월 마늘·양파 토양 수분관리 및 병해충 방제 당부

적정 관수·배수로 정비 등 토양 관리 기준에 따라 약제 적기 살포해 방제

나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홍배)는 고품질 마늘, 양파 생산을 위한 생육 최성기인 4월 내 적절한 토양 수분관리와 병해충 방제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센터에 따르면 구비대(球肥大, 마늘 알이 자라는 시기)가 시작되는 시기에 수분 관리가 미흡할 경우 수

량과 품질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토양이 건조하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뭄이 지속될 때는 자연 강우량을 고려해 10일 간격으로 2~3회 주기적 관수를 해야 한다.

단 물을 너무 많이 줘 과습하면 오히려 생리장해 및 병해충 발생을

초래하므로 사전 배수로를 정비하는 것이 좋다.

웃거름은 생육이 부진한 포장 외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웃거름을 4월 이후까지 사용할 경우 구비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별마늘(2차생장)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확시기 지연, 병해충 발생, 저장 중 부패율 증가 원인이 될 수 있다.

기온이 상승하고 토양에 수분이 많아지면 잎마름병, 흑색썩음균핵병, 노균병, 뿌리응애, 고자리파리

등 본격적인 병해충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재배 농가는 사전 예찰을 통해 이 병주 및 발병주는 조기 제거하고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기준에 따라 적용약제를 적기에 살포해 방제 해야 한다.

나주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마늘·양파의 수량 증대를 위해서는 적절한 생육환경 조성과 적기 병해충 방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성택 기자

담양군, 불법묘지 특별단속활동 추진 생태도시 경관 해쳐 주민신고 등 여론 악화

담양군은 최근 후손의 묘소 관리의 불편을 해소할 목적으로 조성된 산재한 묘소를 한 곳에 모으는 가족형, 문중형 묘지가 광범위하게 성행해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강력한 단속속이 나섰습니다.

그간 산림기반시설 확충 및 산림휴양기능 증진 목적에 따라 꾸준히 조성된 등산로 및 입도의 개설로 산중턱까지 중장비 접근이 용이해져 넓은 묘역을 조성, 무분별한 산림훼손과 축대를 쌓아 집중호우 등 재난 발생시 산사태의 위험을 가중시키는 등 생태도시 경관을 해치고 있어 주민신고 등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

이에 담양군은 전 지역에 걸쳐 조성된 불법묘지를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플래카드를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불법묘지 근절을 위한 계도활동 및 특별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다.

적법한 절차 없이 불법으로 묘지

를 설치할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묘지이전명령과 묘지이전 불이행시 묘지 이전 시까지 매년 1천만 원(년 2회, 각 500만 원)의 강제이행금이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신고나 허가 절차 없이 묘지를 불법으로 설치하면 지역의 경관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벌금과 묘지 이전 등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강력한 단속과 더불어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더 이상의 확산 방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담양군은 아름다운 생태 경관 보존을 위해 갑향공원 및 오룡공원을 조성하는 등 민선 3기 이후 매장 위주의 장사 제도를 화장 문화로 개선하고 친환경 자연장지 및 봉안 중심의 장제문화 유도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강종연 기자

장성군 산하 모든 부서 6월부터 중식시간 휴무

장성군이 6월 1일부터 군청 1층 민원봉사과와 보건소,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 모든 산하 부서를 대상으로 ‘중식시간 휴무제’를 시행한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의 중식시간(12~13시)은 근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적으로 휴식이 보장돼 있지만, 그간 장성군은 주민 편의를 위해 민원봉사과와 보건소, 읍·면 등 일부 부서에 한해 교대근무를 실시해 왔다.

그러나 장성군공무원노조에서 중식시간 방문 민원이 거의 없어, 필요 이상의 행정력이 들어간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장성군은 이를 즉각 수용하고, 오는 6월부터 군청 소속의 모든 부서가 12~13시 사이에 업무를 중단하기로 했다.



화순군이 지역 중심의 스포츠클럽 육성을 통한 스포츠 저변 확대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군은 대한체육회의 '2021년 신규 종합형 스포츠클럽 선정' 2차 공모에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순군 제공

화순군, 종합형 스포츠클럽 육성 '시동'

군 관계자는 “민원업무 담당자의 처우 개선을 통해,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중식시간 휴무제 시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장성군은 제도 시행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내용에 대한 온·오프라인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제도 시행 이후에도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개선책을 마련한다.

아울러, 장성군청 민원봉사과와 장성읍, 삼계농협, 삼부대 4개소에 설치돼 있는 무인 민원발급기를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유광중 기자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지역 중심의 스포츠클럽 육성을 통한 스포츠 저변 확대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군은 대한체육회의 '2021년 신규 종합형 스포츠클럽 선정' 2차 공모에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종합형 스포츠클럽 육성 사업은 주민의 체육활동 생활화, 우수선수 양성, 체육인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지역 체육계 선순환 구조 정착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신청하기 위해서는 5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을 확보하고 스포츠클럽이 공공체육시설 운영 시간의 60% 이상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총 지원금의 10% 이상을 매칭지원금으로 지원할 수 있고, 3개 이상 종목목을 신청해야 한다.

서류평가, 서면 발표평가, 현장 실사 등 심사를 거쳐 오는 6월 지원대상을 최종 발표한다. 사업에 선정

되면 5년간 총 6억 원을 지원받는다.

이번 공모사업에 화순군은 축구, 복싱, 탁구 세 종목목을 신청할 계획이다.

공모 절차 준비를 위해 이미 공공 스포츠클럽으로 선정돼 운영을 하고 있는 장흥군과 곡성군 체육회에 공모 신청 준비 자료, 선정 후 운영 계획 등에 대해 자문을 마쳤다.

/남호경 기자

영광군 상하수도사업소, 주민 휴식공원으로 수선화·상사화·꽃잔디 등 3종 유희부지에 식재

영광군(군수 김준성) 상하수도사업소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휴식공원 조성에 나섰다. 여기에는 하수처리시설이 혐오시설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 주민들의 소통과 휴식 공간으로 사랑받길 바라는 상하수도사업소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었다.

지난 3월부터는 수선화, 상사화, 꽃잔디 등 3종을 유희부지에 식재해 사업소 정문에 들어서면서부터 화사한 봄기운이 하수처리시설 전체를 감돌아 휴식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

특히, 상하수도사업소는 2019년부터 하수처리시설 공원조성을 위해 총면적 37,790㎡ 부지 내에 수목

을 조화로운 환경을 만들었고, 수목 사이로 연못과 쉼터를 설치해 주민들의 눈과 마음이 행복해지는 친환경 공간을 조성했다.

또한, 주민편의를 위해 설치한 사업소 내 잔디축구장과 축구장, 실외골프연습장 등 체육시설을 최적의 상태로 관리해 주민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부지 내 체육시설은 지역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단체는 3일 전까지 상하수도사업소에(061-350-5146) 이용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코로나 방역지침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 강화되거나 다른 단계와 시간이 겹치는 경우 시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니 예약상황을 확인해야 한다.

/김진 기자

김

전복

대파

올금

농수산물엔 진도것이 최고지라~

진도아리랑물

검색

청정 농수산물 공동브랜드